

본당 소식

♣ 환영합니다.

- 저희 밀라노 한인성당을 방문해주신 주 교황청 대사관 박민지 서기관님, 환영합니다.

▷ 지난 행사

♣ 「2025 재유럽 사목자 회의」 및 「성모의 밤 미사」

- 지난 주 19~23일에 밀라노에서 2025년 재유럽 사목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신부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21일 성모의 밤 미사를 준비해주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라스팔마스 한인 성당 대구교구 안상호 요셉
- 베를린 한인 성당 마산교구 이중기 도미니코
- 뮌헨 한인 성당 대구교구 허광철 요셉
- 프랑크푸르트 한인 성당 부산교구 김준한 빈첸시오
- 암스테르담 한인 성당 청주교구 김선영 마태오
- 쾰른 한인 성당 청주교구 이정희 미카엘
- 파리 한인 성당 광주교구 최영희 바오로
- 비엔나 한인 성당 인천교구 양정환 대건 안드레아
- 함부르크 한인 성당 마산교구 이재혁 안드레아
- 모스크바 한인 성당 서울교구 문병현 미카엘
- 런던 한인 성당 안동교구 이승준 도미니코

♣ 「5월 24일 성가대 정기 연주회」, < Giubileo - L'Amore e La Gioia >

-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주신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 외국인 공동체 미사 안내

전례 성가

- 6월 8일(성령강림 대축일), 10:30 입당 : 447 (찬미 예수님)
- Chiesa Parrocchiale della Beata 봉헌 : 512 (주여 우리는 지금)
- Vergine Maria in San Siro 성체 : 172 (그리스도의 영혼)
- ♣ 지난주일 우리의 정성 파견 : 435 (어린이처럼)
- 봉헌금 251.00€ • 교무금 000.00€ 특송 : 하느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 정성일

전례 봉사

이번 주일(5월 25일)	다음 주일(6월 1일)
1독서: 강윤이 스텔라	1독서:
2독서: 변가인 헬레나	2독서:
복 사: 이초노부야, 김익찬 암브로시오	복 사: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 사목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부회장: 김재의 미카엘 ·총무: 박건욱 레오
- 전례위원장: 이민찬 비오 ·성모회장: 김효경 릿타 ·외교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청년구역장: 진하림 글라라
- 1구역장: 유정연 릿타 ·2구역장: 허희숙 마리아 ·3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2025년 5월 25일 (백) 부활 제 6주일 (청소년 주일)

미사 전례

본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이 기쁜 날, 저희가 정성된 마음으로 축제를 지내며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드리오니
지금 거행하는 이 신비를 언제나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화답송

-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
-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거래들을 이끄시니, 거래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
-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

제1독서 (사도행전 15,1-2.22-29)

그 무렵 1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형제들을 가르쳤다.
2 그리하여 바오로와 바르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란이 일어나, 그 문제 때문에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신자들 가운데 다른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하였다.
22 그때에 사도들과 원로들은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뽑아 바오로와 바르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뽑힌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인 바르사빠스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스였다.
23 그들 편에 이러한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원로들이 안티오키아와 시리아와 킬리키아에 있는 다른 민족 출신 형제들에게 인사합니다.
24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 우리에게서 지시를 받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정신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5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르나바와 바오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뜻을 모아 결정하였습니다.

26 바르나바와 바오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27 우리는 또 유다와 실라스를 보냅니다.

이들이 이 글의 내용을 말로도 전할 것입니다.

28 성령과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필수 사항 외에는 여러분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9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만 삼가면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2독서 (요한 묵시록 21,10-14.22-23)

10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광채는 매우 값진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12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열두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성문에는 열두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열두 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13 동쪽에 성문이 셋, 북쪽에 성문이 셋, 남쪽에 성문이 셋, 서쪽에 성문이 셋 있었습니다.

14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22 나는 그곳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양이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23 그 도성은 해도 달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에 빛이 되어 주시고 어린양이 그곳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요한 14,23L-29)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23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24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25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26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27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28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29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운아 헬레나)

사랑이신 주님, 저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세요.

신부님과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쁘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2.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이한 다윗)

하느님, 이제는 전쟁과 싸움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총 대신 말로 하고, 싸움 대신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해 주세요.

저도 친구들에게 먼저 양보하고 사이 좋게 지내겠습니다.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세요.

3. 새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사빈 엠마)

사랑이신 주님, 새로 선출되신 교황 레오 14세가, 모든 사람을 잘 이끌어 주시고, 진리의 빛을 밝히는 목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황님 몸과 마음 건강하게 해 주시고, 많은 사랑과 용기로 지켜주세요.

4. 청소년 주일을 맞아, 세계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아인 레나)

기쁨이신 주님, 청소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시어,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특히 외로움과 상처 속에 있는 친구들이 위로받고,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5.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태리 소화 데레사)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부모님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화목한 가운데 주님께 사랑받는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어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해 주소서.

영성체 후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찾아 주시니 구원을 이루는 이 양식의 힘으로 파스카 신비의 은혜를 저희 안에 가득 채워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